



신동열 저 | 스텝스톤

## 소명에 답하다

☞ 전수용

서구 선진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사회적인 요구는 점점 그 양과 질에 있어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지식과 지성을 공급하는 역할은 국가와 고도의 기업형 교육기관에 자리를 내어 주고 있고 치료는 병원에게 그리고 가장 기독교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리현상인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치유는 전문 상담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내어준과 동시에 기독교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닌 언어는 세속 사회에서 재정의되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시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기독교가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가 있다면 “소명”도 그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용어가 크리스찬 계통에서 사용되는 화석화된 언어의 일부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 기능과는 무관한 추상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 동안 성직자에게 가두어 놓았던 “소명”을 평신도에게 활짝 열어놓은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공헌이라면, 지금은 다시 이것을 계토 너머로 가지고 나가 세상에 선포하고 바꾸는 역할을 할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자는 “소명”을 성경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철저히 분리된 계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에 젊은이들은 많은 도움과 상담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 취업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성세대가 답을 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해보면 그들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조차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제대로 된 질문과 대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소명에 답하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

을 찾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서 “소명”의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실험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명”을 복음의 다른 얼굴로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저자의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귄이라는 사랑에 기반을 둔 관계에서 시작되고, “소명”도 그에서 멀지 않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소명”은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헌신, 율법 때로는 생존에 대한 불안 등이 혼재되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애썼지만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통찰이 이해되기까지 수많은 탐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맡게 되어 그들의 언어와 관심 그리고 내면세계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들의 맑은 영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 이상의 긴 공교육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누구도 사랑, 헌신, 자유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 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배운 적도 훈련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해답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우리 모두의 비극이었습니다.

저자는 다시 우리를 가장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성품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세속적인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기독교 세계관과 마음의 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이후 인류의 전쟁은 가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대량살상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겪은 전쟁이 생존과의 싸움이었다면 산업화의 과정을 지켜 본 기성세대의 전쟁은 부패, 탐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탐욕에 더하여 기준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20세기에 겪은 참혹한 전쟁은 수천만을 살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21세기의 테러와 비정규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싸움은 모호하고 보이지 않고 서서히 무너져 가는 그림자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에는 죄책감이 사라지고 수치심만이 남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쳐야 할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도 많지만 기성세대의 탐과 노력은 오늘날의 풍요와 보다 투명해지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무너지는 기준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치열한 삶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보면 그들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가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준인 말씀, 세상 알기, 은사, 공동체라는 프레임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적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작은 Clue(단서)들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 에 주의하면서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단지 다음의 장소로 달려가기 위한 작은 쪽지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맛보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겪게 되는 모호함과 갈등, 불안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면서 인내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비교적 최근에서야 저의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 일은 평생에 걸쳐 일어날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직업을 찾는 구직자의 입장이지만,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들은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수요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하나의 시각에 너무 빠지면 주관적이 되어 코드를 맞추기 힘들어 지는데 이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뒤집어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언급한 신뢰성이란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우리 사회를 학벌 사회라고 지탄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벌이라는 것은 단지 차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많은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실했다는 증거가 되어 성실성에 대한 반응이 되기도 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뛰어난 두뇌를 소유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많은 Risk를 사전에 줄여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전문성보다는 “인격”과 “Intelligence”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업이 존중하는 이유를 물으면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중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달리 시장에서는 용서도 없습니다. 현대 기업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

가들이 모여 조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구조이고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과는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Cost 또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의사소통이 시너지를 내고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파트 혹은 동료들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지성과 인격적인 신뢰감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인격과 지성은 토익이나 토플처럼 테크니컬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그러하지만 지성은 장기간에 걸친 독서와 사색 그리고 통찰을 기르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격은 낮은 곳을 끊임없이 지향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야 성공한다고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날의 성공에도 유효합니다.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 중에는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려는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혹은 선택한 직업 또는 직장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직장에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대부분이 조직이나 다른 동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내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내면세계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거친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공동체와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는 성숙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측정 가능하고 자격증과 같은 성장만이 가득합니다. 이 같은 풍요의 세대에 가정이 많이 깨



어지고 고통 받는 이유는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인격들간의 만남에 기인합니다. 직장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겪게 되는 많은 부딪힘과 이쁨의 이유를 조직이나 회사가 아닌 자신의 미성숙함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때로 부당함이나 억울함도 있지만 이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많은 훈련과 혹독한 검증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직장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지도자가 부도덕하고 직장 상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며 인내한다면, 그곳의 형식적인 지도자는 사장이나 임원들이라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쫓겨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과도 같습니다.

〈소명을 답하다〉는 기독교인이란면 누구나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소명”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 의미와 찾아가는 과정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소중한 책이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모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을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전수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주식회사 엑시움 부사장이다. 새로운교회 안수집사로 청년세대에 관심이 많다.